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10월 25일 (제1381호)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칼럼

경험해야 돼!

수영에 관한 책을 열 권 읽어도 절대 수영 못 한다. 물에 들어가서 개헤엄이라도 해봐야 수영이란 걸 알고 배운다. 운전을 이론으로 완벽하게 알아도 직접 핸들을 잡아보지 않으면 절대 운전 못 한다. 아마 도로에 나가면 머리가 하얘질걸? 또한 음식도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을 알래야 알 수 없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지식이 몸으로 익힌 지식을 이길 수 없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는 것이다. 체험해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상을 맛보라고 말한다. 책상 앞에 앉아서 백날 책을 뒤지는 것보다 한 번 현장에 나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선교 일행인 한은택 목사가 처음 프랑스에 갔을 때 한 말이 "목사님, 4년 동안 학교에서 불문학을 배운 것보다 한 번 와서 보는 게 낫네요."였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 영어 교수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갔다. 그런데 호텔에 머물 때 전화벨이 울리자 서로 '네가 받아라' 하다가 전화가 끊어졌단다. 영어 교수들인데 말이다. 왜 그럴까? 책으로만 배워서 그렇다. 그러나 이태원에 가봐라.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한다. 부딪쳐서 경험했기에 배운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보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다윗이 양 치는 현장에서 물매를 던지는 법을 익혔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한 것 아니었던가. 지식이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다. 체험이 사람을 바꾼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시34:8). 성경은 '들어 보라'고 하지 않고 '맛보아 알라'고 말씀한다. 체험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를 누가 감당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라. 체험한 믿음이 가장 강한 믿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고통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를 알고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 그 어떤 의술이 나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불렀더니 내 사지를 붙잡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사지가 풀리고 건강을 얻어, 지금까지 세계를 다니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 이 소식을 일성으로 전하십니다. 이번 미국 시애틀(Seattle) 집회 역시 동일했습니다.

시애틀 호세(José Infante, 58세) 목사의 Centro Familiar Christiano 교회에서 진행된 시애틀 집회에서도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증거하듯,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 예수 이름을 불러 고침을 받은 사건을 증거하시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롬10:13)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셨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출신인 호세 목사는 32년 목회하며 이곳 워싱턴(Washington)주에서 가장 큰 중남미 이민자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원래 멕시코(Mexico) 두 도시 집회가 추후로 연기되고, 대신 몬떼레이(Monterrey)의 엠마누엘(Emmanuel Caranco) 목사의 소개로 배설된 집회였는데, 이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관련 기사 4면).

언제나 그렇듯이 목사님의 해외집회 영상을 보여주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Mi Corazón)'을 찬양하며 회중석으로 내려가자, 성령이 임재하여 방언이 터지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집회 실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태거나 뺄 수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역사하신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신 겁니다(요1:12~13).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죄와 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허덕이느냐? 이는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도하여 불을 밝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습니까? 왜 두드리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호4:6). 우리가 박수 치고 뛰며 찬송했더니 땀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이는 준 자와 받은 자 외엔 모릅니다. 손을 비비면 열이 나는 건 나만 압니다. 옆에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셨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성도들에게 내일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촉구하시며 기도해주셨고, 병자들을 단으로 불러올려 일일이 안수해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교회가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2026 미국 시애틀 집회 광경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시애틀 공항 영접


단상으로 올라와 모두가 뜨겁게 찬양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8:12)

겸손하면 존귀와 평안이 따라온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목회에 성공했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저는 백문백답(百問百答)이 예수, 천문천답(千問千答)이 예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제가 잘 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평신도 시절, 제가 여러 사업을 해서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거의 감당했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문제만 생기면 담임목사님을 찾기보다 "이사장님~" 하고 저를 찾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주의 일을 했지요. 열심히는 했는데 저도 모르게 으쓱대는 게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천둥 치는 소리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봐라!" 얼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교만 떨지 말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든 성도 앞에서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납작 엎드리니 참 편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누가 마구 흔들어도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겸손하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뗀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 같다'고 한 것 같습니다(시131:2). 더욱이 놀라운 것은 때가 되니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셔서 '명성(名聲)'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29:23)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자연스럽게 날아오는 건 아시죠? 똥이 있으면 어떻게 알고 오는지, 동네 똥파리란 똥파리가 다 꼬이는 것도 아시죠?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동일합니다. 교만을 떨면 패망이 오고, 거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존귀해집니다(잠18:12). 이건 역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오고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꼬인다

저는 42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벌렁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을 때는 분명히 겸손했는데, 큰 집 사고 큰 차 타니까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눈을 아래로 깔고 거만을 떠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 모습은 마치 누렇게 익은 벼 사이에서 빳빳하게 서 있는 가라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어찌 되었냐고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됩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5:5~6).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겸손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첫 마음을 끝까지 견지(堅持),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암시하자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삼상9:21)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왕으로 뽑혔을 때도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삼상10:22). 그런 그가 변했습니다.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교만해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삼상15:17). '예전의 네가 아냐. 교만해졌어.'라고 했건만, 사울은 이미 귀가 닫혔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길 만큼 목에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지라, 그는 결국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습니다. 웃시야도 그랬고, 루시엘도 그랬습니다. 첫 마음을 견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불렀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렀습니다. 일이 끝나자 주인은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했습니다. 주인은 '나는 너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었으며, 나중에 온 자에게 똑같이 준 것은 내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20:16)고 말씀합니다.
왜 품삯이야기 끝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첫 마음을 잃었습니다. 선배라고, 상사라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행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부르심에 응하여 감사로 일했지만, 주인이 베푼 은혜보다 자신이 수고한 것을 더 크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관록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의 감사와 겸손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의 수고보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여겨야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입교한 자가 처음 마음을 지킨다면 그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은혜받았을 때의 마음,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감사, 처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그 겸손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처음의 믿음과 겸손을 끝까지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된 겸손, 진짜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진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알아봐야겠지요? 그래야 배우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죄인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나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도 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고(요5:19, 요12:49),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자신은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이기에 순종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26:42).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낮아져 겸손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9~11).
가끔 성도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면, 직임을 부여하면, "아이구,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 귀한 일을 할 인물이 못 됩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겸손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너, 참 겸손하구나." 하셨나요? 아닙니다. 진노하셨습니다(출4:14). 그건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거든요.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본토를 떠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해야 참된 겸손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결국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세요. 그러면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칼럼 ::

절제의 미학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사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구촌에 한정된 재화는 무한정 나눠 가질 수 없기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절제하는 기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누군가 폭주하는 순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국가적 갈등이 될 때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규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다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뤄가길 원하신 뜻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주어졌다 해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법과 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빈틈을 노리고 사익을 추구하며 탐욕과 억압의 기제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 가능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세우신 공의를 철저히 준행하십니다.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 약점을 붙들어 어떻게든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 했지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인간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죗값을 대신 치르고 죽게 하셨습니다. 공의를 위해 공적 희생을 스스로 단행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거저 얻었습니다.

더 큰 즐거움을 위해, 더 큰 가치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에서 그런 귀감을 찾아 기리는 이유도 그 위인들의 절제와 희생을 통해 인류 공동체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조금의 장애도 원치 않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절제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고전9:12).

8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이 땅의 잠시 누림을 유보한 채 복음의 길로 나서는 목사님,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에 스스로 절제하는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귀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작은 기쁨을 탐하지 않고, 더 큰 기쁨과 가치를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절제의 미학이라 생각합니다.

Henry Han

:: 책을 읽다 ::

마음이 몸을 다스린다

어느 회사의 중역이 자신의 승용차 기사를 채용하려고 벼룩시장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를 보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생김이 썩 마음에 들고 활기 있게 보여 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하자 불안이 고조된 중역이 기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전에 당신은 무엇을 했소?" "트럭 운전을 했습니다." "뭘 싣고 다니는 트럭이었소?" "벽돌을 날랐지요." "아, 그랬군. 미안하지만 더는 불안해서 당신이 모는 차를 탈 수 없소."

이 중역은 다시 다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는 차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몰고 다녔습니다. 마음이 편한 중역이 느긋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전에 무엇을 했소?" "트럭을 몰았습니다." "아니, 무엇을 싣고 다녔길래 이리 운전이 조심스럽소?" "아, 저는 계란 배달 트럭을 몰았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싣고 다니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사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내면에 세상만을 가득 담고 있다면 당신의 겉모습을 경건으로 무장해도 세상 풍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속에 악을 머금은 이리가 있다면 아무리 양의 옷을 입어도 포악한 발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거룩해진다면 거룩을 가장치 않아도 당신의 표정 하나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고, 건네는 따스한 말 한마디로 인자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화(化)된 사람은 무표정의 얼굴에서도 온유함이 흐르며, 말하지 않아도 감동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예수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옹달샘 책 중에서



:: 빛과 소금 ::

1일 1선 (一日一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 마주하는 세상 만물과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걸작품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 주변을 돌아보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돌아보면 나 역시 다르지 않다. 다른 사람보다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불편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사는 동네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 역시 선을 베푸는 일이 쉽지 않다. 바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주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고, 운전 중 다른 차가 끼어들면 불쾌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도 내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1일 1선'이다.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실천하자고 마음먹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려 줄 때도 '오늘 실천할 선한 일이 하나 생겼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운전 중 다른 차에 양보할 때도 손해를 본다는 생각보다 선을 행할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는 달라진다.

성경은 말씀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날도 있고, 여전히 내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고 불평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싶다.

오늘도 1일 1선!

내가 건넨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 배려가 또 다른 배려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조금씩 따뜻해지지 않을까?

송지혜

:: 생명의 말씀 ::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평생 땅만 바라본다. 돈을 바라보고, 명예, 권세, 세상의 성공을 바라본다. 마치 땅속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에 감추어진 부와 명예와 성공을 찾아 평생을 살아간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리면 우리 마음은 점점 땅의 것에 붙잡히게 된다.

문제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갈망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어야 한다. 땅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지 않음을 가르쳐 준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빌3:20).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사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보자.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여 달리고 있느냐이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승점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다. 반대로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향해 달리는 사람은 결국 결승점에 도착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느냐?',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임택함 목사

::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

카지노를 교회로 바꿨습니다


시애틀의 호세 목사 부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신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만나게 하신다.

이번 미국 워싱턴(Washington)주 시애틀(Seattle) 집회에서는 호세(Jose Infante, 58세) 목사를 만났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출신으로 캔자스시티(Kansa City)의 해리건(Juan Carlos Harrigan) 목사처럼 야구선수 출신이란다. 도미니카공화국 자체가 야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나라이고, 야구로 성공하여 미국 메이저리그(ML)에 진출하게 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고 한다. 그는 20대 후반에 그 세상적 부와 명예의 길을 접고 현재까지 32년 목회의 길을 가고 있다. 계속 야구선수로 성장하여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 후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와 '다 이루고 나니 삶이 참 공허하다'며 오히려 자신을 부러워하더란다. 그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한참 후 그가 예수를 영접하여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시애틀 집회를 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원래는 멕시코(Mexico) 두 도시에서 하려던 집회가 무산되고, 몬떼레이(Monterrey)의 엠마누엘(Emmanuel Carranco) 목사의 소개로 이번 집회가 이루어졌다. 목사님은 시애틀로 떠나기 전, "시애틀 집회를 주관한 목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주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단다.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어 무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생각하셨는데, 호세 목사 부부를 만나 대화하면서 그 연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셨다. 또한 우리는 총기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목사님의 요청에 모든 종들과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였는데, 역시 다 이유가 있었다. 첫날 집회에 보니 밖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호세 목사 왈, 요즘 총기사고가 많아 500인 이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경찰병력이 배치된다고 알려주었다.

호세 목사는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중남미 이민자 교회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의 간증에서 놀라웠던 것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원래는 카지노(Casino) 건물이었다는 것이다. 늘 건물 지하 같은 곳을 전전하다가 이젠 좀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교회를 마련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더란다. 아무리 보아도 눈에 들어온 것은 카지노가 성업 중인 건물이었단다.

누가 들어도 미친 짓이었다. 카지노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성업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에 호세 목사는 그때부터 매일 7시간씩 기도하며 밤 12시가 되면 그 건물을 찾아가 1시간씩 주변을 돌았다고 한다. 아내도 밤마다 무슨 미친 짓이냐고 했지만, 2년 9개월 동안 빠짐없이 이 일을 진행했다. 순찰하던 경찰들도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물론 수중에는 돈이 전혀 없었다. 자신이 생각해도 미친 일이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계속했다. 나중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혹시나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 마치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그도 신발을 벗고 카지노 실내를 돌기 시작했단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하고 건물 주인을 만나보기로 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했단다. 주인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더란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한 달 후 건물의 열쇠를 받을 거라고 발표까지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 기뻐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주인이 요구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고, 교착상태가 이어졌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자 호세 목사 자신도 지쳐갔다. 성도들과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고, 그는 하나님께 거의 체념 조로 기도했단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면 어쩝니까? 저 카지노 건물을 주시든가,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정말 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주인이 일정 기간 분납으로 건물 구입비용을 내도 좋다며 카지노 건물을 호세 목사에게 내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 후 건물 안에 의자 2,500석을 설치하며 카지노를 교회를 바꾸었고, 지금은 모든 대금을 갚은 상태에서 계속 부흥 성장하고 있단다.

목사님은 우리 건축위원들이 이 간증을 들어야 한다고 흥분하셨고, 한국에 와서 이 간증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돈 한 푼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룬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었다. 아내에게까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목사님은 역시 무슨 일이든 미쳐야 대업을 이룰 수 있다며 그의 믿음에 감탄하셨고,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미국, 중남미, 저 스페인(Spain)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축복하셨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목사님은 그를 만나면 마치 세미나 하시듯 목회 성공의 노하우를 전수하셨다. 그는 목사님의 목회 성공비결에 대해 궁금해했고, 목사님은 먼저 방언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을 쓸 때 권한을 주었으면 믿고 맡길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목회의 어려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등을 이야기했다. 집안까지 드나들며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사람들을 끌고 나갈 때 정말 힘들었단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일행을 밖으로 물린 후, 정말 하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목회하는 동안 자녀들과 원수가 되었고, 15년 넘게 지금까지도 아버지 보기를 원수 대하듯 한다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네 자식들이나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자녀들은 칼을 들고 와 아비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정말 다 그만두고 죽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다. 매일 잠자리에 들 때면 이대로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단다. 이런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던 이야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목사님은 그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이렇게 큰 교회를 이끌면서 아무런 고난 없이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나 또한 예수를 만나고 목회하면서 가족이 떠나고, 교단으로부터 제명되고, 믿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며,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나도 하지 못하는 간증이 많다. 그러나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길을 가고 있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다. 과정이다. 자녀들은 언젠가 돌아온다. 이것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이 길을 계속 가라. 이것이 사도의 길이다."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사모는 연신 눈물을 찍어냈다. 아비보다도 어미로서 자녀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럼에도 남편의 목회를 도우며 지켜낸 사모의 신앙 또한 위대하다고 목사님은 사모를 위로하셨다.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 영광의 모습 뒤에 가려진 눈물의 골짜기가 있기에 목사님 말씀처럼, 멋진 추억담을 만들고, 천국의 길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선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닐까.

이튿날 만난 호세 목사 부부는 그동안 막혔던 것이 다 뚫린 것 같다며 거듭 사의를 표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다가 죽고 싶다던 사람이 목사님을 뵙고 100세까지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보다도 목사님이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것 같다며 기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호세 목사 부부를 위로하신 것이다.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가득한 시애틀의 가을 또한 참으로 아름다웠다.

한은택 목사

추계산상집회

* 11월 9일(월)~12일(목)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문의: 02. 533. 9191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